

# 은행권의 물 건너간 ‘주 52시간 근무제’

올 하반기 시행 어려워져  
은행권 총파업 가능성도  
3차 조정회의도 합의 못해

은행권 노사가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해 은행권의 올 하반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또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금융노조가 2년 만의 은행권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9시간 가량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 관계자들은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3차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조정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은 특수직무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범위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금융노조는 올해 안에 주 52시간 근무를 도입하되 모자란 인력은 충원에 모든 직무에서 시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특수 직무는 예외로 두고 유연근무제를 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측이 제시한 예외 직무는 인사, 예산 분야 관련, 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4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상견례를 겸한 '제1차 산별중앙교섭'을 개최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관리실, 정보기술(IT) 관련 등 20여개에 달한다.

앞서 금융노조와 사측은 지난 4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자교섭 14차례, 임원급교섭 3차례, 대대표교섭 4차례, 대표단교섭 4차례 등 모두 25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지난달 18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어제(9일)까지 3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노사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종료됐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등을 포함한 쟁의행위 돌입을 놓고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총파업과 관련해 금융노조의 33개 지부 대표자들은 11일 향후 투쟁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조만간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등을 포함한 쟁의행위 돌입을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노조는 쟁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교섭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는 “중노위서 합의점 도출이 실패함에 따라 협의를 통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구별 노조 대표자 회의를 연 뒤 총파업 찬반 투표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이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연내 주 52시간 근무 도입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노사가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모색하고자 했던 쟁점으로는 ▲예외직무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 ▲정년 연장 ▲임금인상률 4.7% ▲점심시간 1시간 일괄 휴식 ▲노동이사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있다.

특히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을 기존 만 55세에서 만 58세로 늘릴 것과 정년을 63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최초 국민연금 수급 직전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자고 제시했다가 현행 정년에 3년을 더하는 쪽으로 수정안을 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측은 인건비 부담, 청년고용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 상반기 ELS발행 48兆 ‘사상 최대’

올해 상반기 과생결합사채(ELS B)를 포함한 추가연계증권(ELS) 발행액이 48조원을 넘어선 반면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상반기 ELS 발행액이 48조94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45조4841억원)보다 5.7%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국내외 증시 변동성 확대로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ELS 발행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발행 형태별로는 공모발행이 전체의 81.9%인 39조3899억원에 달했고 사모는 18.1% (8조7045억원)를 차지했다. 기초자산별로는 유로스톡스50(EURO STOXX 50) 지수가 37조80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30.4% 늘어난 규모다. 이어 홍콩恒生중국기업지수(HSCEI) 지수(34조2021억원, 304.3% 증가),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S&P500) 지수(23조3328억원, 67.6% 증가), 니케이225(NIKKEI 225) 지수(13조9594억원, 34.3% 증가) 순이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KEB하나은행은 10일 오전 다양한 자연감성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컬처뱅크 3호점’을 잠실레이크팰리스지점에 오픈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오른쪽 네번째)이 개점식에 참석한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도심 속 자연 은행 ‘컬처뱅크 3호점’ 오픈

KEB하나은행 신개념 복합 문화공간

KEB하나은행 10일 다양한 자연감성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컬처뱅크 3호점’을 잠실레이크팰리스지점에 오픈했다고 밝혔다.

잠실레이크팰리스지점은 방배서래(공예) 1호점, 광화문역(힐링 서점) 2호점에 이은 KEB하나은행 컬처뱅크 프로젝트의 세 번째 결과물로, 쿼타마마켓 가드닝 셀렉샵, 르메르디앙 호텔 그린스

페이스, 메종 포 그린 럭셔리리스트스 스위트룸 등으로 널리 알려진 ‘베리핑즈 스튜디오’와의 협업을 통해 도심 속 ‘자연 아뜰리에’라는 신개념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컬처뱅크 3호점’에는 자연주의를 지향하는 메뉴로 구성된 카페를 비롯해 ‘도심 속 자연’을 주제로 한 각종 기획 상품의 전시 및 판매공간도 마련 되어, 은행 지점에 대한 기존 이미지의 획기적 전환을 시현했다. /김문호 기자

## 이대훈 NH농협은행장 세종 일미농수산물소통

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이대훈 행장이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일미농수산물 방문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계현안 및 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일미농수산은 ‘일가집’이란 브랜드로 절임식품을 생산·판매하는 국내 1위 기업체다. 30여년 간 단무지, 찜무 및 절임 반찬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해온 지역 토종 농식품업체다. 국산농산물만을 사용해 우리 농산물소비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농협은행이 주최하는 ‘차랑스런 농식품



이대훈 NH농협은행장(왼쪽)이 지난 9일 일미농수산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NH농협은행

기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행장은 “국산농산물을 활용한 세계적인 제품개발을 기대하겠다”며 “농협은행도 동반자로서 농식품기업 컨설팅, 여신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 KB금융-바로다 은행 ‘韓·印’ 리딩뱅크 손 잡다

개인·기업·무역 등 포괄적 협력  
인도시장 진출 본격화 기대

KB금융그룹은 지난 9일 윤종규 회장이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국영은행인 바로다은행(Bank of Baroda) 스리 P.S 자야쿠마(Shri P.S.Jayakumar) 은행장과 포괄적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개인금융 및 기업·무역금융 분야와 카드 비즈니스, 모바일 페이먼트 분야 등에서 포괄적인 업무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바로다은행은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인도 시장에서 약 5400여개의 지점과 5만 2000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인도 2위 국영은행으로 KB금융은 바로다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KB국민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구르가온 지점 개설이 완료될 경우, 바로다은행을 통한 루피화 자금조달과 바로다은행 네트워크 및 고객기반 등을 활용해



KB금융그룹 회장 윤종규 회장(오른쪽)이 바로다 자야쿠마(Shri P.S. Jayakumar) 은행장장과 악수하고 있다.

인도 신디케이션 론 시장에 안정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또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한국에 진출한 인도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카드는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 구축 등 인도 정부의 ‘디지털 인디아’ 정책 기조에 맞춰 한국의 선진결제 기술 역량을 활용해 모바일 결제, 개인회원 및 가맹점 대상 부가서비스 제공,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등 인도 시장 내

지털 결제 에코시스템을 바로다 은행과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인도의 리딩 국영은행인 바로다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의 은행과 비은행 사업인 카드 및 페이먼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KB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페이먼트 분야의 역량을 활용해 바로다 은행과 함께 인도 정부의 ‘디지털 인디아’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신한은행 ‘글로벌·中 경제 전망 세미나’ 개최

신한은행은 지난 6일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영성분행, 영성시 개발부와 공동으로 중국 영성 현지에서 ‘2018년 하반기 글로벌 및 중국 경제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국 현지 기업 고객 및 리테일 고객 총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중국 및 글로벌 경제 전망과 해외 동포가 알아야 할 세무 상식 등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신한은행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계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부정적 여파가 전세계

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민감한 시기를 감안해 대내외 불안 요인을 덜어낼 수 있는 중국 정부의 여러 정책적 노력을 상세히 안내해 현지 진출한 기업 고객 및 리테일 고객들의 불안 해소에 기여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지법인이 진출해 있는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경제 및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세미나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 자산관리 전문가 집단인 WM그룹의 투자자산전략부와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주도로 2017년 11월부터



지난 6일 중국 영성 소재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하반기 글로벌 경제 전망 세미나’에서 현지 신한은행 거래 기업 고객 및 리테일 고객 100여명이 강연을 듣고 있는 모습. /신한은행

주간 중국 경제 동향 및 이슈 자료(China M Focus)를 중국 최대 SNS인 위챗을 통해 고객들에게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